

신입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대학교 이야기

글/김남국 그림/박하영

감수/교사자료위원회



재재 -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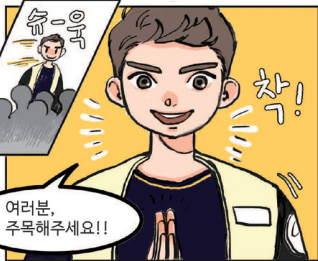
새로운 옷!
가방! 신발!



두 달간
헬스로 다진 몸!



국민대학교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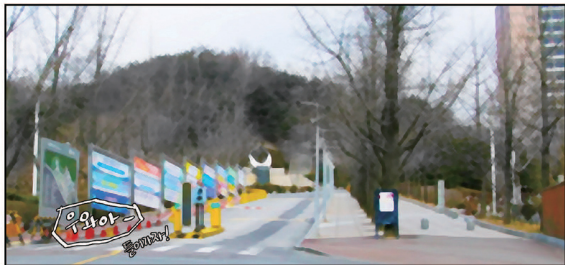




● 1996년 국민대학교 전경




● 2016년 국민대학교 전경



국민대학교 본부관 앞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임시정부 요인으로
일생을 독립운동과
국가에 헌신하시고

정부수립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셨던 분입니다.

헛헛 ~!

헛...
재능도 누구야...

헛!

대강
합체?

오~ 맞아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바로 우리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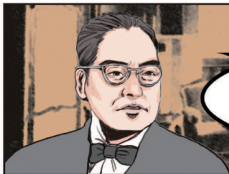
그럼 지금부터
우리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게요.

때는 194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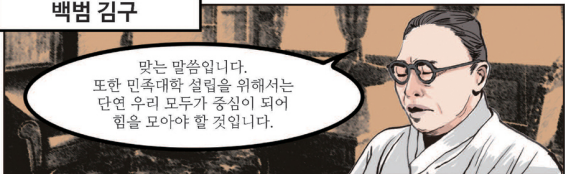
김구의 숙소 '경교장'

해공 신익희



해방을 맞은 이 때,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범 김구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민족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단연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함께 국가 동량의 산실을
만들어 봅시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이 고문을,
외무부장 조소앙이 명예회장을, 내무부장 신익희가 회장을 각기 맡고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국민대학을 설립해 나갔다.
국민대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미군정의 방해 속에서도
신익희의 주도 하에 1946년 12월
해방이후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탄생하였다.



잘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학교는 임시정부가 설립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학교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봅시다!





● 제 3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 제 3대 대통령선거 신익희 후보 유세 관련 보도

자, 이곳이에요!
이 글은 우리학교
교훈입니다.

와아~!

守為執以 枝訓
正影必守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교위가!

사필귀정!

파지짐!

저두!

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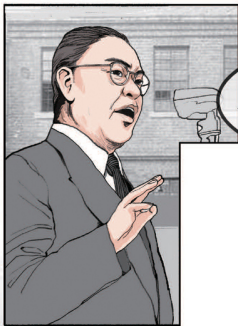
맞습니다! 이교위가 정신은
학교를 내 집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필귀정은 올바르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학교 건학이념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창성동캠퍼스



안녕하십니까, 신익희입니다.
국민대학 입학생 여러분을 맞아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 본래 사명인
진리 탐구에 있어서
나라의 최고 권위가 되도록 할 것.

둘째는 실제 생활에 대한
지식을 준비하여
국가 건설의 참된 역군이 될 것.

셋째는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궁행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에
공헌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대학의 교훈으로
'이교위가(以校爲家)',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잘 들었나요, 여러분?

네!!!



이러한 해공선생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상추구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스스로와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실천해야 함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에!



자, 그럼 다음 장소인
도서관으로 이동~

와아-!



● 국민대학교 창성동 캠퍼스
-해공 신익희와 학생들



● 창성동캠퍼스 교사 증설에 발 벗고 나선 학생들



● 교사 증축 이후의 창성동 캠퍼스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자 그럼! 질문!
우리학교 도서관에는
왜 성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우리학교는 설립 당시
마땅한 재단을 갖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곡 김성곤 선생님이
우리학교를 인수하셔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곡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1993년 신축된 도서관을
성곡도서관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요!

이분이 바로
성곡 김성곤 선생님입니다.



1959년 우리학교를 인수하시고
국민학원 재단 이사장, 이사를 역임하며
국민대학교의 초석과 중흥을 이뤄내셨습니다.

자 그럼,
성곡선생님의 육영이념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국민대학을 인수하게 된 것은
신익희 선생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지성인을 양성하고
나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대학이 내 생애에서
최고의 투자라고 느끼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민대학에 다니는
제군들을 대할 때면
과거의 나를 보는 듯합니다.



성곡 김성곤

성곡 선생님의 육영이념은
해공 선생님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성과 자유 그리고
민족과 실용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학교 교육이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1년 내내 도서관에
한 번도 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도록 하세요!

와하하!

아침!

성곡 도서관 안에는 해공 선생님과
성곡 선생님 기념관도 있으니
한 번 둘러보고 갈게요! 따라오세요!

와아-

<국민대학교 정릉캠퍼스의 변화와 발전>



● 건설 초기 국민대학교 정릉 캠퍼스 전경



● 1970년대 국민대학교 전경



● 1990년대 국민대학교 전경



● 2000년대 국민대학교 전경



● 2010년대 국민대학교 전경

성곡 기념홀

이곳에는 성곡 선생님의 기업가로서의 삶과 교육자로서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와~

성곡 선생은 백년대계를 꿈꾸며
국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다음
네 가지의 육영이념을
제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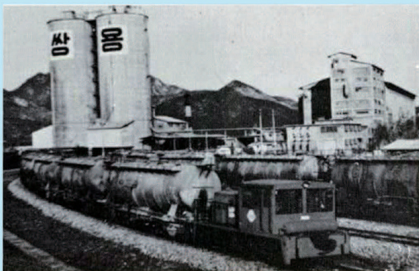
민족주의, 인본주의,
문화주의, 산업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성곡선생님의
뜻을 잇기 위해
지금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창업지원센터'와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학교 박물관의 해공기념홀에는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곳과 함께
자유롭게 관람하고 오세요~

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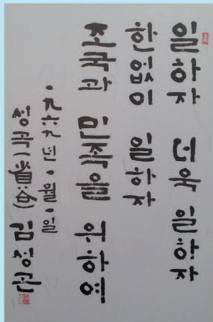
신난다!



● 쌍용양회 동해 공장 전경



● 동해공장 시멘트와 박정희 대통령 친필



● 성곡 김성근 찬필 휘호



● 수출을 위해 선적중인 쌍용 시멘트



● 금성방직 제품 상표



● 안양 금성방직 공장 전경



● 공장을 시찰중인 성곡 김성곤과 함태영 부통령



그래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 쌍용상은
바로 우리학교의 교상인
용두리입니다.

용두리가 우리학교의
교상이 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30여년의 노력 끝에 1993년에 이르러
용두리가 우리학교의 교상으로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와~



용두리는 우리학교의 상징으로
졸업사진의 필수 촬영코스이기도 하죠!
봄이면 벚꽃 잎이 흐드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학교 명물입니다.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와~!





끼아아!

어머! 고양이이다,
고양이!

냐
냐
냐

너무 귀엽다!
엄마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들인가 봐.

우구구~
우쭈쭈!

와
와
와

파랏...

그러다 물리는
거 아냐..?

뭐?!
이렇게 귀여운 애가
그러겠니?

무서
...

하하!

국민대의 귀염둥이
고양이들입니다.

우리학교 곳곳을 누비며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학교에는
꼭 가봐야 할 명소가
하나 남아있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명원 민속관

짹짹 -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우와!

여러분, 모여주세요!

우리학교의 명소 명원민속관입니다.
이 건물은 대한제국 시기
참정대신이었던 한규설 대감의
가옥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당시 한규설은
을지로의 강교동에 살았는데,
을사늑약 당시 끝까지 이를 반대했으며,
조선교육회와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민족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 조선민립대학기성회창립기념
(1923. 3. 31)



● 을사늑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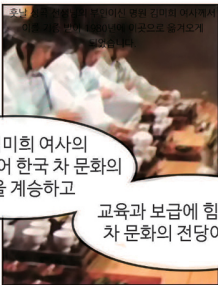
● 참정대신 한규설



훗날 성곡 선생님의 부인이신
명원 김미희 여사께서
이를 기증 받아 1980년에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미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차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교육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차 문화의 전당이랍니다!



아침, 교양강의 중에
'다례'라는 수업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에 꼭 한번
수강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다례는 내가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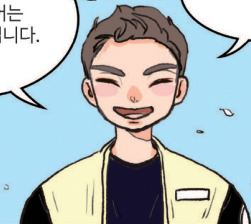


● 명원 민속관 공연행사

자 오늘의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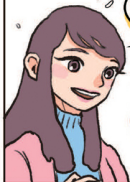
마음이 뻥!

정말
다행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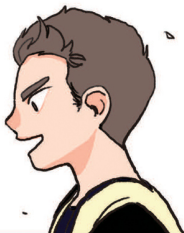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히히

개웃



지금의 국민대학교는 임시정부와
해공 신익희 선생님, 성곡 김성곤 선생님
그리고 우리학교를 거쳐 간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 동문 선배님들이 일궈낸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뒤풀이가 빠질 수 없겠죠?
자 그럼 출발~!

네에!

와아아~





